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09년 8월 20일(목)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머타임, 여성의 삶에도 큰 변화 가져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머타임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주제로 토론회 개최,
서머타임의 득실에 대한 열띤 토론 벌여.....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주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09년 8월 20일(목)

연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info@kwdimail.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은 녹색성장위원회와 여성부의 후원 하에 8월 19일(수)에 본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서머타임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서머타임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09. 8. 19(수), 13:30~16:30
- 장 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관 2층 국제회의장
- 주 제 : “서머타임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 주 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후 원 : 녹색성장위원회, 여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은 녹색성장위원회와 여성부의 후원 하에 8월 19일(수)에 본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서머타임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토론회는 우리 정부가 에너지 절약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며 내년 도입을 검토 중인 서머타임제의 실시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도에서 조명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정식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서머타임제의 도입 효과 및 성공적 도입 방안”을 주제로, 진미정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교수가 “서머타임제 도입: 여성과 가족 삶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신정식 교수는 “서머타임제는 에너지절약 의식 고취, 여가생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히며, “최근 선진국은 서머타임제의 시행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의미를 두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 진미정 교수는 “서머타임제는 주간과 야간의 경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라이프스타일을 재구조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로 개인 여가와 이동이 저녁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만큼, 아동과 여성의 저녁시간 활동에 대한 심리적, 실질적 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고 설명했다.

- 한편, 주제발표 후에는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김순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본부장, 김태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가족연구실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이갑숙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정책개발부장, 이미원 대구여성가족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정근 We Green 여성실천단 연구위원,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 이날 토론자들은 대체적으로 “서머타임제의 시행이 저녁시간 에너지 사용 증가와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증가, 직장노동시간의 증가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 토론 후 신정식 교수는 “서머타임의 에너지절감효과

는 시행 전·후 조건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은 한 분석시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절감효과는 6~8월에 크게(2배) 나타나므로, 4, 9월만 비교시 에너지 절감효과는 낮게 분석될 수 있다. 방법론에 따라 연구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서머타임제의 도입으로 일광시간을 활용하는 시간이 한 시간 늘어남으로써 야간조명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다.” 고 설명했다.

또한 “서머타임은 에너지위기, 기후온난화 위기 및 저성장경제시대를 극복하고 선진국가로 진입하는 계기의 하나로 인식하여, ‘일하는 방식’ ‘삶의 방식’을 바꾸어 삶을 여유롭고 유익하게 바꾸는 기회로 살아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또한 진미정 교수는 “우리는 이미 생체리듬보다는 사회리듬에 맞춰 살고 있기에 생체리듬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특수성과 관련한 비용이나 시간 등의 추가부담 등 이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고 설명했다.

더불어 “서머타임제의 도입으로 삶의 질이 한꺼번에 향상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머타임제의 시행

이 일/직장 중심의 생활과 문화에서 가족 친화적인 문화로 변화하고, 지역사회 관련 인프라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어, 긍정적인 효과들을 창출할 수 있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고 마무리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현 원장은 “서머타임제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하고 찬반논의를 할 수 있는 오늘과 같은 논의의 장이 중요하다고 본다. 서머타임제 도입이 기업과 가족, 사회의 변화를 통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계기로서 역할해 주기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의의를 밝혔다.

별첨 1. 행사일정

별첨 2. 발표자료

별첨 3. 토론자료

별첨 1. 행사일정

13:30 - 14:00	등 록	
14:00 - 14:20	개회식 사회: 황정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장) - 개회사: 김태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 축 사: 변도윤(여성부 장관) - 격려사: 김형국(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14:20 - 15:00	사회: 강석훈(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표 1	서머타임제의 도입 효과 및 성공적 도입 방안 신정식(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발표 2	서머타임제 도입: 여성과 가족 삶의 변화에 대한 전망 진미정(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교수)
15:00-15:10	휴 식	
15:10-16:10	지정 토론	고금숙(여성환경연대 활동가)
		김순희(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본부장)
		김태홍(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가족연구실장)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이갑숙(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정책개발부장)
		이미원(대구여성가족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정근(We Green 여성실천단 연구위원)
		최은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연구실 연구위원)
16:10-16:30	종합토론 및 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www.kwdi.re.kr)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